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09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7.14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 발 앞 에 내 주님 서신 발 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 발 앞 에 나-앞드 러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성서교독 잠언 10:3-30 중 다같이

인도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성도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인도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성도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인도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성도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다같이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참회기도 나, 이웃, 교회, 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다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사도행전 6:1-7..... 다같이
 말씀묵상..... 다같이
 말씀권면.....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행 6:1-7〉 1-4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는 제자 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일곱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5-6 회중이 그 생각을 아주 좋게 여겼다. 그들은 다음 일곱 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콜라.

회중은 그들을 사도들에게 보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일을 위임했다.

7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행 6:1-7〉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묵상노트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하나
작은



님의부-르심-에는-후회하심이-없네- 내가이자리-에 선것도-주의
나를부-르신- 뜻을-나는알수없-지만- 오직감사와-순 종으로-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님의부-르심-에는-결코실수가-없네- 나를
길을가-리라- 때론내가연-약해-저도-주님날도우-시니- 주의



부르신-하 나 님의- 신실 하 심을-믿 네-
놀라운-그 계 획을- 나는 믿 으며-살 리-



날부 르신뜻- 내 생 각 보 다 크 고 - 날 향



한 계획- 나의지혜로 측 량못-하 나- 가 장



좋은길로- 가장 완전한-길로- 오늘 도 날 이끄심-믿 네
신실 하 신 주를찬-양 해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오후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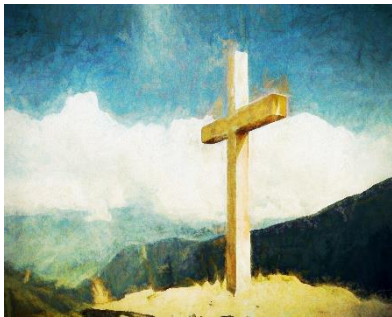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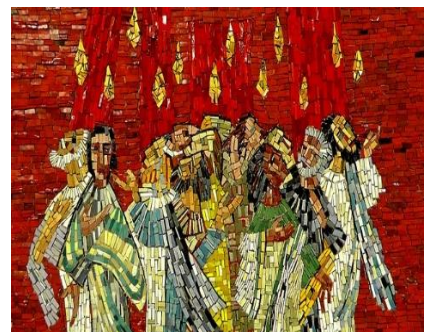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앙상블 토브 기념앨범 후원

우리 음악으로 찬양하는 걸음을 이어온 '앙상블 토브(TOV)'의 10년만의 첫 앨범 제작에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이 앨범은 새로운 10년을 꿈꿔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 음악이 더 잘 준비되어 사용되는 일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앙상블 토브를 위해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앙상블 토브 단기미션 진행을 위한 미션펀드 QR코드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음향은 업그레이드 중

교회 음향기기가 수명을 다해 새로운 음향기기들로 교체중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2주 정도 걸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동안에는 소리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길목교회 여름수련회

일시: 7.27(토)오후3시까지~7.30(화) 저녁10시까지

장소: 길목교회 본당 / 방식: 성경통독 수련회 / 회비: 1만원

유치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가 길목교회에서 8.3(토)-4(주일) 있습니다. 다음시대를 책임질 어린 아이들을 향한 집중적인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같이 중보해주십시오.

평신도 쭈바이블 사역

평신도 쭈바이블 오리엔테이션 (7월15일 오전10시30분~오후12시)

시가서 성경통독 시작

월요일부터 50일간의 시가서 성경읽기가 시작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비유와 은유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새번역이나 쉬운성경을 통해 통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7.15~9.10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속에서 놀라운 간증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양상블 토브 앨범 제작 중보

우리음악으로 찬양하는 걸음을 이어온 '양상블 토브(TOV)'의 10년만의 첫 앨범 제작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아 중보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안참고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교역자 휴가

전정민 전도사 7.21 주일 / 이건명 집사 8.18 주일